

# 새해 첫달 국악 여행 떠나볼까

금호아트홀 오늘부터 매주 목요일  
피리·해금 독주회, 퓨전 국악 연주  
25일 어린이 국악단 '아리술' 공연



피리 박혜민

해금 박선호

‘1월 한달은 금호아트홀 국악 공연과 함께’ 유·스퀘어 문화관이 1월 한 달 동안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금호아트홀에서 ‘아름다운 유·스퀘어 국악콘서트’를 개최한다.

‘아름다운 유·스퀘어 국악콘서트’는 금호아트홀에서 클래식 이외에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 기획한 공연이다.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독주회, 국악단, 어린이국악단 등의 신명 넘치는 무대들이 준비돼 있다.

4일에는 박혜민 피리 태평소 독주회가 열린다. ‘상림산’, ‘박법환류 피리산조’, ‘경기태평소’, ‘태평소 시나위’ 등 피리 특유의 긴 호흡을 바탕으로, 맺고 풀어 내리는 선율의 자연스러운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가야금 병창’, ‘호남가’, ‘사랑가’ 등 다양



퓨전 국악그룹 '여유'

<금호아트홀 제공>

한 가락도 들을 수 있다.

11일에는 박선호 해금 독주회로 ‘함녕지곡’, ‘지영희류 해금산조’, ‘팔도아리랑 연곡’, ‘철새 사철나무 밑동지에 동지를 틀다’ 등을 통해 이야기가 있는 해금 연주를 들려 줄 예정이다.

18일에는 퓨전 국악그룹 ‘여유’의 무대가 준비돼 있다. 가야금 병창, 아쟁, 건반 및 타악기의 조화로 ‘아쟁병창’, ‘쑥대머리’, ‘아리랑 연가’ 등을 들을 수 있다. 또한, 드라마 OST를 국악 버전으로 들려주는 등 국악을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무대로 꾸며졌다.

25일에는 어린이 국악단 ‘아리술’과 함께한다. 순우리말로 소나무처럼 아름답고 마음이 늘 푸른 사람이 되라는 뜻을 가진 ‘아리술’은 전통문화예술을 배우고 보완, 창작하면서 전통의 깊은 맛을 살려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팀이다. 20여명의 어린이가 무대에 올라 ‘설장구’, ‘소고놀이’, ‘웃다리농악’ 등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국악콘서트는 만 65세 이상 관람자는 신분증을 소지하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다. 선착순 제한인원이 있으며, 미리 예약해 관람할 수 있다. 문의 062-360-8432. /전은재기자 ej6621@

## 석학들의 문화·과학강연 손 안에 본다

네이버 열린연단 올해 50회 강연

동서양 근대성의 한계와 가능성을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검토하는 강연이 진행된다.

‘열린연단 : 문화의 안과 밖’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우창 고려대 명예교수)는 6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 카오스에서 ‘동서 문명과 근대’를 주제로 1년 동안 총 50회 강연을 연다고 밝혔다. 강연 영상과 강연 원고 전문은 홈페이지(openlectures.naver.com)와 모바일에서도 동시에 볼 수 있다.

‘열린연단 : 문화의 안과 밖’은 석학들이 직접 주도하는 문화과학 강연 프로젝트로 김우창 명예교수를 비롯해 유중호 전 연세대 석좌교수 등 7명의 운영위원이 강연 기획부터 감사 섭외, 강연 진행까지 프로젝트 전반을 운영하고 있다.



김우창 명예교수

첫 책선인 ‘사상의 근대성(1~11강)’은 크게 ‘근대성 이론과 그 비판’과 ‘한중일 근대성의 경로를 짚어보는 ‘근대성과 동양’으로 나뉜다. 김우창 교수의 ‘근대화·동서양의 차이’를 시작으로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등이 연사로 나선다.

두 번째 책선 ‘과학기술의 근대성(12~26강)’에서는 동서양의 과학, 산업혁명의 역사, 수학, 양자역학 등 과학의 여러 분야까지 폭넓게 살펴본다. 강연자로는 우리나라 1세대 과학사학자 박성래 한국외대 명예교수 등이 나선다.

세 번째 책선 ‘정치경제의 근대성(27~36강)’에서는 수백 년 이래 이어져온 근대화 경로의 끝자락에 선 우리 사회의 현재적 의미를 짚어본다. 정치학자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이진경이라는 필명으로 널리 알려진 박태호 서울과기대 교수 등이 연단에 오를 예정이다.

마지막 책선 ‘문학예술의 근대성(37~50강)’에서는 시대적 전환기를 맞고 있는 영화·음악·미술·시·소설 등 근현대 예술 장르에서의 근대성을 성찰해 본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남도예술은행 신소장품전’

16일까지 서울 인사동서

전남문화관광재단이 ‘2017 남도예술은행 신소장품전’을 서울 인사동 G&J 광주·전남 갤러리에서 16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지역 미술작가 창작지원 및 아트플랫폼 구축을 위한 예술작품 공모에 선정된 작품들로 지역작가의 수도권 진출을 돕기 위해 서울 인사동에 위치한 G&J 광주·전남 갤러리와 연계해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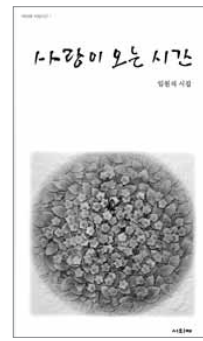
전시 작품은 공모에 선정된 42점 중 서양화, 한국화, 문인화, 서예·서각, 도예 등 총 25점으로 기존 한국화, 문인화, 서예·서각, 서양화 4개 분야에서 도자공예 분야까지 확대됐다. 작품크기도 20호 이내에서 50호까지 커지는 등 지원 폭을 넓혀 보다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소개하는 구입작품은 예술작품 멤버십 렌트사업을 위해 선정한 임대작품으로 작품전시·판매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 부분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061-280-5826.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지는 꽃잎, 길거리에도 사랑이 있다”

임원식 광주문인협회장 시집 ‘사랑이 오는 시간’ 출간

“모든 존재는 혼자이면서 혼자 아니다. 자연 속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의 연어로 살아 가고 있다. 소나무들도 혼자 아니다. 나뭇잎 하나하나 자신들의 시어들을 주고받으며 즐거운 삶을 보내고 있다.”



“사랑이 내게 오기까지/ 내가 사랑으로 가기까지/ 시간은 얼마나 오래이며/ 그 거리는 또 얼마나 먼 것인가(중략) // 피었다 지는 꽃잎이나/ 나뭇잎에도 사랑은 있고/ 오다가다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낯선 사람의/ 눈빛에도 사랑은 담겨 있는 것”

표제시 ‘사랑이 오는 시간’은 순수한 자연이나 다정한 이웃들에 대한 사랑을 대상으로 한다.

모두 유한한 생명체로 시간의 순환을 벗어날 수 없는 연민의 존재들이다.

시인인 임원식 광주문인협회 회장은 신작 시집 ‘사랑이 오는 시간’(사외재)을 펴냈다. 시인은 이번 작품집에서 ‘사랑’의 의미를 새삼 강조한다. 지금까지 고향과 모성을 매개로 한 자연적 서정을 추구했던 시인은 이번에는 ‘사랑’에 초점을 맞춰 시세계를 선보인다. “시란 기쁨에서 시작하여 예지로 끝난다”는 로버트 프로스트의 말을 입증하는 것처럼 시인의 작품활동은 기쁨의 단계에서 예지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첫 시집 ‘당신의 뒷발’에서 이번 ‘사랑이 오는 시간’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이 이를 방증한다.

시인인 임원식 광주문인협회 회장이 신작 시집 ‘사랑이 오는 시간’(사외재)을 펴냈다.

시인은 이번 작품집에서 ‘사랑’의 의미를 새삼 강조한다. 지금까지 고향과 모성을 매개로 한 자연적 서정을 추구했던 시인은 이번에는 ‘사랑’에 초점을 맞춰 시세계를 선보인다.

“시란 기쁨에서 시작하여 예지로 끝난다”는 로버트 프로스트의 말을 입증하는 것처럼 시인의 작품활동은 기쁨의 단계에서 예지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첫 시집 ‘당신의 뒷발’에서 이번 ‘사랑이 오는 시간’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이 이를 방증한다.

한편 임 시인은 해남 출신으로 광주문학상, 창조문예문학상 등을 수상했으며 한국시인협회와 한국PEN클럽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언어연구에 쓰이는 빅데이터’ 8일 전남대 강연

전남대 ‘BK21플러스 지역어 기반 사업단’(단장 신해진·국 어국문학과 교수)이 오는 8일 오후 2시 인문대학 이음호강의실(인문대 1호관 106호)에서 제24회 전문가 초청 강연을 개최한다.



임수중 연구원

임수중 연구원은 이번 강연에서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언어연구 기술 등을 소개하고, 언어 연구 활용사례를 직접 시연하여 보다 실제적인 내용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전남대 ‘BK21플러스 지역어 기반 사업단’은 2013년부터 ‘지역어와 문화가치’를 키워드로 국내외 석학 및 해당 분야 전문가를 초청한 강연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역어를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가치를 창출해 온 국내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수준 높은 강연을 제공했다. 문의 062-530-0230.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곡성 설화의 전승... 논문집 ‘전남문화재’ 발간

전남문화관광재단 전남문화재연구소에서 고고학 및 문화재 관련 전문 학술 논문집인 ‘전남문화재’ 제16집을 발간했다.



‘전남문화재’는 고고학 및 문화재 관련 전문 학술논문집으로 2006년까지 전라남도 주관으로 간행되다 전남문화재연구소가 설립된 후 2014년 14집부터 승계 발간하고 있다. 논문집은 전남문화관광재단 누리집 문화재연구소 학술자료실(jact.or.kr)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이번 논문집에는 고고학, 고대사, 민속학 등의 연구논문 뿐만 아니라 전남 지역과 타 지역 및 외국의 사례 연구논문 등 다양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손동혁(시베리아연방대학교) ‘시베리아 후기구석기시대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  
CHANNEL A  
매주 목요일 밤 11시  
이덕화 | 이경규 | 마이크로닷